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위에 참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극히 혼란스런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사랑과 기도로 비콜 선교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선교소식을 전합니다.

### 더욱 심각해지는 각 지역 “우상숭배 축제”

비콜에서 처음 선교사역을 시작할때 매년 9월에 약 한달 동안 진행되는 “페나 프란시아” 우상을 섬기는 축제 를 보며 상상을 초월한 규모에 놀랐고, 거대한 영적 싸움에서 과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혹시 비가 오면 우상 퍼레이드는 물론 각종 행사가 진행되지 못할까 기대하며 기도 해 보았지만 비와는 상관이 없었고, 해가 갈수록 더 성대하게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여기서 태어났으니 여기서 죽을 것이다”라 답을 합니다. 전통과 거짓 진리에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향한 안타 까움에 조급한 마음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자비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저들에게 나아갑니다.



### “We are the chosen people”

3년 만에 “청소년 캠프”를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도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 모임 자체가 허용이 안돼 일대일, 또는 바랑가이에서 개별 모임밖에는 가질수 없었던 청소년 들에게 전체가 모여 캠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흥분과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캠프를 위해 스텝들과 오랜시간 기도하며 준비 하였고, 그 결과 250여명이 참석하여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영적 도전과 기쁨이 넘치는 캠프가 되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그 동안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던 많은 청년들이 제자 훈련에 지원하였고, 믿지않던 청소년들이 새로 등록하는 은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영적 은혜도 풍성했지만 “화운교회 정충원 목사님과 부천 노회 목사님들의 협력으로 캠프 운영비가 충당되어 좋은 시설에서 맛있는 식사가 제공되어 육적으로도 풍성한 캠프가 되어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 사역이 더욱 활성화 되어 더많은 젊은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선교지의 단비 “단기선교”

아직 팬데믹 이 끝나지 않아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항공 신우회 회원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과 믿음으로 단기선교를 결정하고 준비하여 8월 2째주에 다녀갔습니다. 단기선교를 단비라 표현 한 이유는 이번 단기 선교는 영적으로나 정신적 물질적으로 힘든 비콜 사람들에게 단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산지족과 진정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해야 겠다는 단기 선교 팀의 열정은 폭염, 폭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결과 기존 아웃리치 성도들에게는 격려와 자랑이 되었고 많은 아이들, 청년, 장년들이 예배모임에 참석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 기도해 주세요.

- \* 비콜 복음화를 위해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이 어떤 역경속에도 지속될수 있도록.
- \* 전도와 구제사역, 바랑가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영육간에 강건함과 성령님의 기쁨 부음을 위해 .
- \* BCMA 미션 스쿨의 운영과 마련된 새 부지 위에 학교교실등 선교를 위한 재반 시설이 건축 되어 비콜 선교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 \* 선교사의 성령충만한 사역과 영육간에 안전과 강건함을 위해기도해 주시길 간구 드립니다.